

# 비록의 일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맑음

제목 : 재원아 반가워!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  
TV를 보았다. 아빠께서  
일어나시니 같이 농담도 하고  
놀았다. 나는 인형을 안고  
둥글둥글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굴렀더니  
어지러웠다. 나는 문에는  
아이스크림 하나 쥘려있었다.  
엄마였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두둥지로 먹고 옷을  
갈아입었다. 차를 타고 수원에  
갔다. 12시쯤 되었다.  
6시까지 재원이와 컴퓨터  
게임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아이스크림이 입에서  
살살 녹았다. 그리고 6시에  
큰엄마 집에서 TV도 보고  
술래잡기도 했다. 내일은  
월요일이다. 나는 즐거운  
일주일일 분별 것이다.